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6

“우리도 함께 뛰다”

함평나비마라톤클럽

나비의 고장 건강 지킴이 전국 누비며 ‘함평 홍보’

“함평군민 건강 지킴이 모범단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마라톤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함평나비마라톤클럽이 3·1 마라톤대회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이들은 나비의 고장 함평 군민들의 건강과 함평나비마라톤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3·1 마라톤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함평나비마라톤 성공 기원

만민수 나비마라톤클럽 회장은 “우리고장에서 열리는 함평나비마라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 연 20여 차례 회원들이 출전해서 나비축제를

를 홍보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다”며 “3·1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클럽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평나비마라톤’ 클럽은 지난 2001년 초 함평나비축제를 앞두고 결성, 그해 제1회 나비마라톤 대회를 주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냈다. 그리고 올해 4월12일 제9회 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은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20여 명으로 시작한 클럽은 꾸준한 회원들의 활동과 함께 건강을 생각한 각계각층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 50명으로 클럽 회원이 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천혜의 마라톤

코스인 함평천을 따라 10Km를 달리며 회원간 우의를 다지면서 꾸준한 건강과 실력을 키우고 있다.

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김종운(43·함평군청)씨와 여성회원 김질례씨는 나비마라톤 클럽 회원중에서 자타가 공인한 실력자들이다.

매주 두차례 10Km 질주

특히 김 총무는 지난 2005년 3.1마라톤 대회 하프코스에서 3위 입상했고 김질례씨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매번 1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조성대(65·건축업)씨는 나비축제를



전국을 뛰며 나비의 고장 함평을 알리고 있는 함평나비마라톤클럽 회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3·1 마라톤대회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 함평에서 임진각 까지 달렸는가 하면 군입대할 아들들을 위해 함평에서 강원도 소재 아들 근무 부대까지 달려가 아들에게 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등 마라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비마라톤 클럽은 출범 3년 만인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매년 함평나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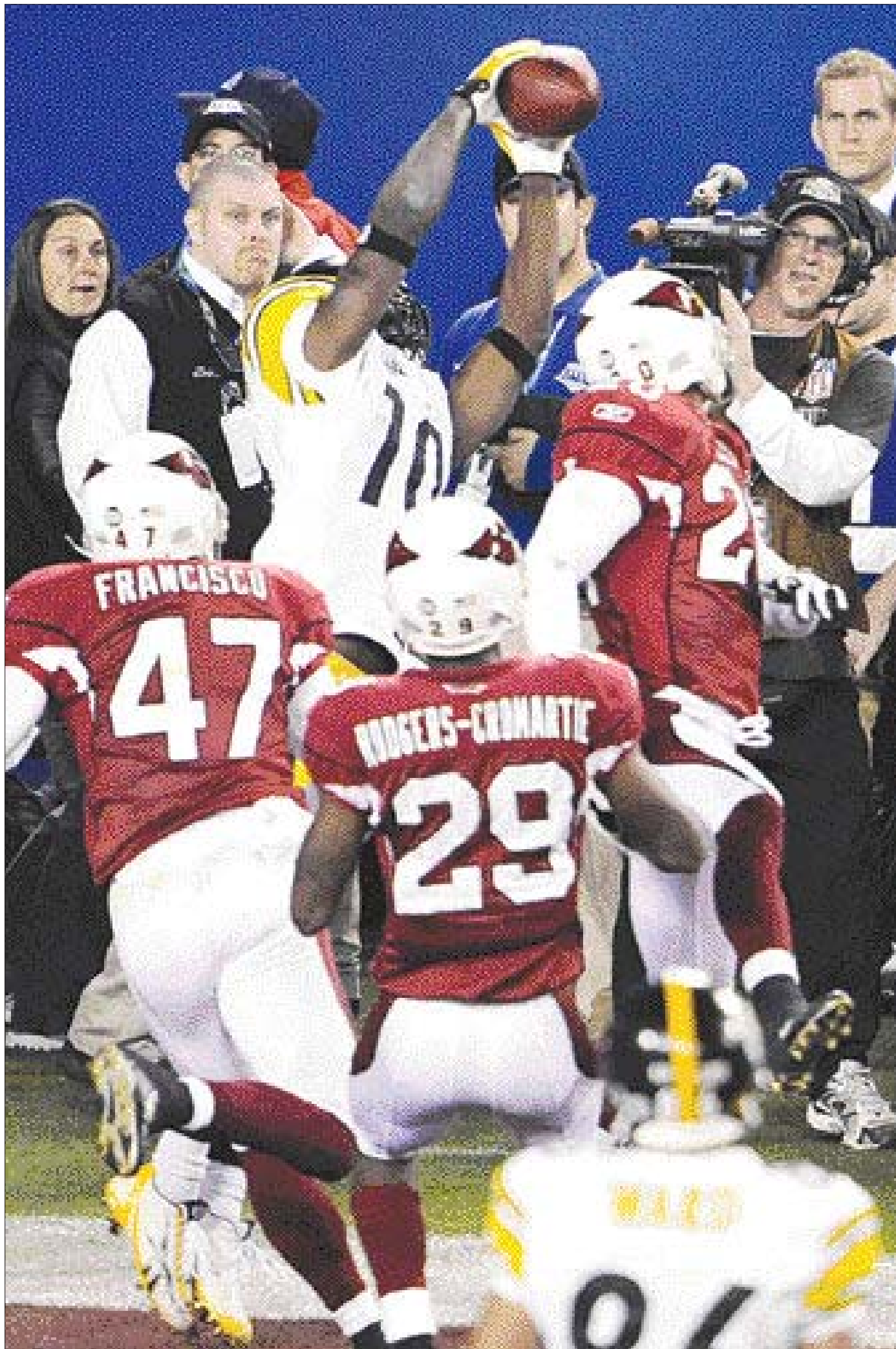
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다.

클럽의 활발한 활동과 홈페이지 개설, 전국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프랑카드와 홍보전단지 등을 이용해 홍보에 주력하는 등 회원들의 열정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이다.

만민수(53·천지농협 전무) 회장은 “함

평군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위해 회원들에게 주력할 생각이다”면서 “3·1 마라톤 대회 선전을 기반으로 오는 4월 친환경 생태 군에서 열리는 나비마라톤 대회에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즐기고 갈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2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시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3회 슈퍼볼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산토니오 홈스(뒷쪽)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수비수들을 뚫고 우승을 결정짓는 터치다운 볼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볼, 42초의 역전 터치다운!

피츠버그, 애리조나 27대23 꺾고 통산 6번째 우승 한국계 워드, 생애 두번째 우승반지 ... MVP에 홈스

한국계 미축구프로(NFL) 스타 하인스 워드(32)가 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3년 만에 두 번째 슈퍼볼 우승 반지를 꼈다.

피츠버그는 2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시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3회 슈퍼볼에서 산토니오 홈스가 경기 종료 42초전에 역전 터치다운을 찍어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27-23으로 꺾었다.

2006년 슈퍼볼 MVP로 뽑혔던 워드는 생애 두 번째 슈퍼볼 정상을 밟았으며 피츠버그는 슈퍼볼 최다 우승 기록(6회)을 세웠다. 우승 후보들을 잇달아 격파하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61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한 애리조나는 42초를 건디지 못하고 분루를 삼켰다.

피츠버그는 철통 수비를 앞세워 애리조나의 초반 예봉을 봉쇄하며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부상에서 돌아온 워드는 1쿼터 초반 쿼터백 벤 로슬리스버거의 38야드짜리 첫 번째 패스를 성공적으로 받아내면서 피츠버그 쪽으로 경기 분위기를 가져왔다.

워드의 전진에 힘입어 공격을 이어간 피츠버그는 제프 리드가 필드골을 넣으면서

3-0으로 앞서 나갔다.

피츠버그는 2쿼터에 들어서도 1분 만에 러닝백 게리 러셀이 상대팀의 수비를 운문으로 뚫고 1야드 러싱 뒤 터치다운에 성공하면서 10-0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하지만 애리조나의 노장 쿼터백 커트 워너(38)의 송구 같은 패스가 되살아나면서 피츠버그는 수세에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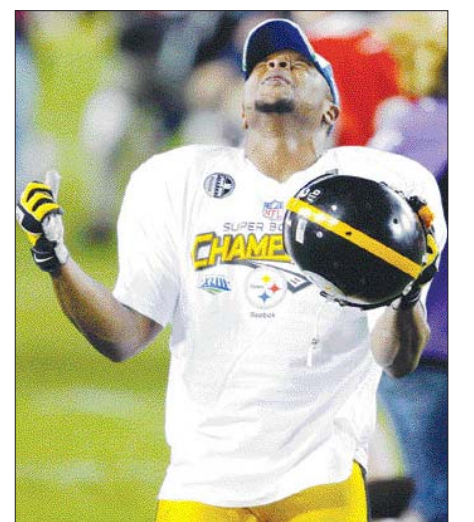
2쿼터 9분을 남겨 두고 애리조나는 벤 패트리가 워너의 1야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찍으면서 10-7로 따라붙고 나서 쿼터 내내 피츠버그를 압박했다.

2쿼터 종료 1분을 남겨두고 워너의 패스를 피츠버그 라인메커인 제임스 해리슨이 가로채고 나서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10야드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17-7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해리슨의 이날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100야드 인터셉션 리턴은 NFL 사상 가장 긴 인터셉션 리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애리조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애리조나는 4쿼터에 들어 래리 피츠제럴



하인스 워드가 슈퍼볼 우승 뒤 기뻐하고 있다.

드가 워너의 패스를 받아 2번이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20-23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피츠버그는 그러나 경기 종료 42초를 남겨두고 홈스가 로슬리스버거가 던진 6야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찍으면서 재역전에 성공,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경기를 승리로 끝맺었다.

이날 경기의 MVP로는 마지막 공격에서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피츠버그의 재역전을 이끈 산토니오 홈스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답답하네’

2018·2022년 월드컵

중국, 유치신청 포기

한국축구, 시리아와 평가전 1대1 11일 월드컵예선 이란전 빨간불

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5위에 불과한 시리아와 평가전에서 비기면서 중동 원정에 약한 모습을 또 한 번 드러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 평가전에서 상대의 자책골에도 불구하고 1-1로 비겼다.

지난해 11월19일 열린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이기며 19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승리를 따

냈던 대표팀은 이번 시리아 전 무승부로 11일 테헤란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월드컵 예선 4차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 이어 이번 시리아, 4일 바레인 등 중동 팀들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이기며 ‘중동 징크스’를 시원하게 털어내고 이란과 맞서겠다는 계획이 첫 단추부터 틀어진 셈이다.

이번 시리아와 평가전에서 최상의 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치른 평가전이지만 중동의 거센 바람에 한국팀은 아쉬운 경기를 펼치며 많은 속제를 낚았다. 허정무호의 동력이 될 박지성과 박주영, 이영표는 소속 팀 경기를 치르고 오는 8일을 전후해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국은 오는 2018년이나 2022년 월드컵 축구 개최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중국축구협회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월드컵과 같은 국제 경기 신청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며 월드컵 신청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축구 개최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2일까지 중국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